

기억, 상상, 장소 경험을 통한 기호적 사고*

– 문화적 리터러시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 『배움의 발견』을 중심으로

이윤희**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문화적 리터러시와 내레이션
- II. 장소와 경험, 그리고 기호적 자아
- III. 술어적 세계로서의 장소와 “나(I)”: ‘나는 집이다’
- IV. 대상으로서의 장소와 경험: ‘나는 집을 떠났다.’
- V. 표현으로서의 장소와 대화적 자아: ‘나는 우리 가족에 관해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 VI.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장소와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기호적 사고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궁극적으로 ‘장소 내러티브’ 모델링을 통한 기호적 사고가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해석에 이르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탐구 방법으로 지표적, 자기지시적 기호 “나(I)”를 매개로 장소 경험을 재현하는 주체의 기억과 상상의 행위를 고찰한다. 이 같은 방법과 고찰로 타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6A3A01097826)/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21년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대회(2021년 10월 23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단독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부교수, moreena@hufs.ac.kr

웨스트오버의 자전적인 글 『배움의 발견 (Educated)』을 퍼스의 기호학적 틀에서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경험 주체가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상학적, 인식론적, 해석학적 관점에서 장소와 자아의 관계를 논한다. 결론적으로 장소와 자아의 관계에서 장소는 풍경에서 표현으로 변형되며, 작용주체로서의 자아는 기호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장소 내러티브’를 통해 ‘타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열쇠어 : 기억, 문화적 리터러시, 상상, 퍼스의 기호학, 자전적 글쓰기, 장소, 경험, 타
라 웨스트오버

I. 들어가는 말: 문화적 리터러시와 내레이션

제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되면서, 삶의 태도와 방식, 형태를 변형시키고 있다. ‘메타버스’, ‘부캐’, ‘뉴트로’, ‘불명’ 등의 표현이 더는 낯설지 않다. 우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실제 인물과 허구적 인물, 과거와 현재, 자아와 타자, 문화와 반문화가 공존하는 복잡성과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댓글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듯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사고는 내가 선이면 너는 악이 되는 세계를 재현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남과 여,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양극에 위치하며, 이는 어떤 형태의 대화적 노력과 상호작용도 작동되지 않는 조건을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소와 실존의 관계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 같은 물음들은 장소적 표현을 통해 21세기 문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창세기 4장 9절)라고 물으신다. 첫 번째는 본래의 사적 자아 즉 자아의식에 관한 물음이

고, 두 번째는 타자로서의 자아인 인격적 자아 곧 대화적 자아에 관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형태의 물음은 연속성에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개별적 자아(individual self)가 본래의 사적 자아를 대화적 자아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개별적 자아는 대화적 자아의 정신이 체현된 토큰으로서의 개별기호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물음, 즉 관계성에 존재하는 지표적, 자기지시적 기호로서의 “나(I)”와 자아, 그리고 자아와 타자, 곧 기호적 자아들에 기초해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야 할 곳은 상호주체적 공간이다. 그 공간은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장소이며, 진보와 보수가 토론하는 공론의 장소이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소통하는 ‘기억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공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해석작용주체로서 대화적 자아로 기능하며, 서로 다른 개체 혹은 개인 간의 비교/해석을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는 창조적 주체이며, 더 중요하게는 도덕적 창조성을 발휘하는 기호적 주체가 된다. 우리는 먼 과거도 모르고 먼 미래도 모른다. 우리는 “중간 세계(Midworld)”(Miller 2005:203~204)의 이야기를 산다. 한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의 끝에서 시작되며,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레이션 행위를 통해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며, 이야기세계 내에서 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내러티브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21세기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의 시대이다. 자기표현의 문화는 소통을 위한 ‘기억의 공간’으로서 역사와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공간은 현재의 과거로서 문화가 역사와 만나는 장소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리터러시는 융합, 조화, 연결을 통한 소통 능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은 문화를 표현하며, 창조한다.

미국의 잘 알려진 실용주의 교육학자 맥더모트(John McDermott)는 문

화적 리터러시를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안한다. 자서전/전기,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과학으로서 식물학과 생리학, 조각, 그리고 연극이 그것이다(McDermott 2007:458~475). 자서전과 전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에서 그는 현재 공교육에서 정신적 맥락의 부재를 지적하며, 역사적, 문화적 과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Ibid.:459).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관계성을 맺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핵심적이며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말한다(Ibid. 463). 왜냐하면 자아는 사회적 기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맥더모트의 주장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해 읽고 그 영향으로 일기를 쓰는 행위가 과거를 현재와 융합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 진단을 위한 사적 공간/풍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Ibid.:468).

본 논문은 “관계 맺는 능력”으로서의 문화적 리터러시를 서술되는 자아를 통해 내러티브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전적인 글에서 고찰하며, 이를 기억, 상상, 장소 경험을 통한 기호적 사고의 틀에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서술되는 자아 개념에 기초한 자전적 글쓰기의 경험이 나와 타자를 이해하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위한 조건이 됨을 밝힌다.

분석 대상인 타라 웨스트오버(Tara Westover)의 자전적인 글, 『배움의 발견 (Educated)』은 ‘장소 내러티브’로 말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소와 주체의 관계가 서로 연결된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된다. 현상학적, 인식론적, 해석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결된 세 단계의 접근은 퍼스 기호학의 범주 이론에 기초해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작용하며, 그 결과 텍스트는 주체의 장소 경험을 통해 자아가 서술되는 기호과정을 드러낸다. 이 세 가지 접근에서 주체와 장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현상학적 관점에서 1차성에 기초해 ‘(주체)+BE +장소’로 표현되고, 둘째, 인식론적 관점에서 2차성에 기초해 ‘주체+ Vt(transitive)+ 장소’로 재현되며, 셋째, 해석학적 관점에서 3차성에 기초해 ‘주체₁+ Vd(dative) +주체₂+ about 장소’로 재현된다. 이러한

조건과 관점에 기초해 지표적, 자기지시적 기호인 “나(I)”를 통해 서술되는 자아의 기호과정을 자전적인 글에서 살펴본다.

첫째, 현상학적 접근에서 술어적 세계로서의 장소(BE+장소)와 “나(I)”와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집과 세계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의 장소를 상상하는 것처럼 “나(I)”의 어린 시절의 집에 대한 기억이 현상학적으로 관찰된다. 둘째, 인식론적 접근에서 대상으로서의 장소와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경험 주체로서의 “내”가 경험한 장소에 관한 기억의 기록 및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장소와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분석한다. 셋째, 해석학적 관점에서 표현으로서의 장소와 대화적 자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억과 상상의 관계를 재현한 자전적 글쓰기가 “나(I)”와 타자를 대화적 관계에 위치시키는 서사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더 나아가 이야기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웨스트오버의 내레이션을 행위는 타자가 거주하는 공간, 삶의 방식, 태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위한 문화적 실천임을 주장한다.

II. 장소와 경험, 그리고 기호적 자아

그 순간까지 그 열여섯 살 소녀는 늘 거기 있었다. 내가 걸으로 아무리 변한 듯했어도- 내 학업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고 내 걸모습이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소녀였다. 좋게 봐준다 해도 나는 두 사람이었고, 내 정신과 마음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 소녀가 늘 내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나는 그 소녀를 볼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떠난 것이다. 그 소녀는 거울 속에 머물렀다.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그 소녀는 내리지 않을 결정들이었다. 그것들은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이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나는 그것을 교육이라 부른다. (Westover 2020:481)

위의 인용문은 타라 웨스트오버(Tara Westover)의 『배움의 발견(Educated)』의 마지막 장 <교육>의 끝부분이다. 이 책은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가 미국 아이다호의 산골짜기 마을 벅스피크와 캠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 캠퍼스를 오가며 장소에 대한 경험을 기억과 상상을 통해 재현한 자전적인 글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벅스피크 집의 장소가 캠브리지와 하버드 대학 캠퍼스의 역사, 자유의 장소와 상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웨스트오버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연관되고,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물들이 연결되어 상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소는 풍경 또는 지역으로서 이해된다. 또한 장소는 환원되지 않는 특이성을 통해 사람, 사물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철학이 장소 개념과 만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¹⁾ 김성환은 1970년대 인본주의 지리학이 출현한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던 주제인 장소 개념이 태생이 융복합적인 철학과 만나 장소 철학이 되었다고 진단한다(김성환 2020:15~31). 그러면서 그는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소 연구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에 관한 모든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장소 철학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앞의 책:30). 또한 장소 철학자로 알려진 제프 말파스(Jeff Malpas)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에 기초하여 장소를 자아와 연결하여 철학적 인

1) 국내에서는 이론서인 『장소 철학』1권과 2권(2020/2021)이 최근에 출간되었고, 번역서로는 논리적 영역에서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다룬 『토포스:장소의 철학』(2021)이 올해 재출간되었다. 또한 에세이 모음집 『나는 장소입니다』(2015)는 장소라는 주제가 갖는 융복합적 경향과 시의적절성을 방증하는 한 예가 된다. 국외에서는 장소 철학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S. 케이시(Edward S. Casey)와 제프 말파스(Jeff Malpas)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기억의 양태와 장소기억을 다룬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2000)와 장소와 자아/주체의 관계를 다룬 *Place and Experience: A Philosophical Topography* (2018)가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장소와 사고의 관계는 케이시와 말파스의 대담 에세이인 “A phenomenology of thinking in place”(Jill Bennett and Mary Zournazi, eds. *Thinking in th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학의 관점에서 장소 개념을 고찰한다(Malpas 2018). 한편 미국의 소설가 워커 퍼시(Walker Percy)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퍼시의 기호학적 틀 안에서 다이어그램-도상을 통해 문학 공간에서 장소 철학을 실천한다.²⁾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 퍼시는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상호주체성의 개념에 기초해 장소 철학을 전개한다. 따라서 퍼시에게 문학은 사회과학으로서 기능하며, 이런 점에서 이야기세계 인물들과 현실 세계 자아들이 연결된다.

공간과 장소는 추상성(모호성/일반성)과 구체성(현실성/개별성)의 개념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시학』(1957)으로 잘 알려진 바슐라르는 자신의 책에서 구체적 장소(집, 장롱, 지하실, 새 집 등)에 대한 질료적 이미지와 상상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는 가령 보이는 집과 그 뒤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관계를 통해 장소 경험과 상상력에 관한 예들을 문학의 표현(특히 시)에서 가져와서 분석한다. 바꾸어 말해,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상상력을 통해 장소와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며, 둘 사이의 관계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문학의 공간』(1978)에서 모리스 블랑쇼는 이미지와 시체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다.

죽음은 장소와의 관계를 정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기 이곳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토대이거나 하듯이 이곳에 무겁게 버티고 있다. 주검에게 걸립된 것은 바로 이 토대이다. 장소가 없는 것이다. 시체는 어디에건 제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 어디도 아닌 곳, 그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주검의 현존은 여기 이곳과 그 어디도 아닌 곳 사이에 관계를 맺어준다. (Blanchot 1990:353)

-
- 2) 워커 퍼시의 소설은 인물의 장소 경험을 다루며, 독자는 이러한 소설의 인물을 매개로 장소와 자아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인물과 독자 사이에 대화적 공간 또는 기억의 공간이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세계와 현실 세계는 다이어그램-도상의 유비적 사고를 매개로 하여 연결된다.

블랑쇼의 유비적 사고는 질료적인 ‘허물’로서의 장소 이미지와 그 어디도 아닌 곳인 여기에 실재하는 자질로서의 장소 이미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한의 공동체로서, 상호주체적 장소에 거주하며, 그 공동체의 현존은 실재하는 자질로서 너와 나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위 인용문은 시사한다.

퍼스의 철학에서 현상학적 범주인 1차성이 갖는 특질은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증적인 자질로서 존재한다. 이는 모호성(vagueness)의 자질을 지닌 이미지 기호를 통해 우리가 현재 의식³⁾에서 느끼는(경험되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퍼스의 용어로 말하면 ‘현상(phaneron)’이다 (Peirce CP 1.285). 따라서 상징기호가 복제의 형태로서 개별기호로 나타나는 것처럼, 추상성과 구체성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과 장소의 관계는 체현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 장소의 이미지는 다시 그 안에 자질로서의 이미지(실재)를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과 장소의 관계는 장소 지각과 연관되는 장소 이미지의 현상학적 관점을 시작으로, 현실 세계에 얹의 대상으로서 개별적 장소를 경험하는 인식론적 관점을 통해 그 장소를 인지하며, 장소의 의미를 발견하는 해석학적 관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호 과정에서 탐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 주체, 곧 기호적 주체이다. 그러므로 장소와 주체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은 위의 세 관점을 통해서 고찰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호 과정은 작용주체의 느낌, 행동, 재현(해석)의 세 양태를 드러내는 사고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장소기억을 통한 이미지는 느낌으로 경험되고, 그 느낌은 기억과 상상의 행위를 통해 정신의 다이어그램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 기초해 1인칭 인칭대명사 “나(I)” (레마적, 지표적 법칙기호)를 통

3) 퍼스는 현재 의식을 느낌(feeling) 또는 의식의 첫째 상태라는 점에서 최초의식(primisense)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타자의식(altersense)과 매개의식(medisense)의 다른 두 형태와 함께 의식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세 형태의 의식은 각각 1차성, 2차성, 3차성에 대한 의식이다(Peirce CP 7.551).

한 글쓰기는 장소와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호과정이 된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기호적 주체가 “나(I)”라고 발화하는 순간은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의 세계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그녀/그것’과 맺는 관계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세계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세계의 “나(I)”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며, 개별적 경험에 기초해 인격적 자아로 성장한다. 이때 이야기세계의 “나(I)”는 개별적 자아를 나타내는 지표기호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저자와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인칭 관점으로 서술되는 지표적, 자기지시적 이야기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개별적 자아는 내러티브 기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일관성(consistency)을 통해 인격적 자아의 개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인격적 자아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의식(medisense), 즉 배움을 발견하는 의식(Peirce CP 7.544)의 경험주체이며, 그 개념은 독자와 저자를 기호과정에 거주하는 자아들로 위치시킨다.

웨스트오버의 자전적인 글은 이 같은 기호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야기세계에서 장소와 기억의 관계의 한 축과 현실 세계에서 상상 행위와 글쓰기의 관계의 다른 축이 교차되면서 대상과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내러티브 기호의 과정을 기술한다. 퍼스에 따르면 사고의 과정 자체가 기호과정이며, 우리 몸이 움직임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고의 과정에 존재한다(Peirce, EP 1:42). 따라서 기호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호, 대상, 해석체의 각 주체가 삼원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고의 과정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사고의 세 양태, 즉 느낌, 행동, 재현(해석)의 삼원적 관계에서 드러난다.

웨스트오버의 글은 “나(I)”를 사용하는 1인칭 관점의 경험서사이다. 자신의 장소 경험을 재현한 내러티브다. 집과 가족에 대한 경험, 그리고 대학의 캠퍼스와 대학사회에 대한 경험을 재현한 이야기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나”라고 지칭되는 웨스트오버가 어떻게 자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인격적 자아 곧 기호적 자아의 개념을 갖게 되는지를 추적한다.

마르코 스탠고(Marco Stango)는 퍼스의 자아이론에서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에 주목하고, 일반적으로 습관과 상징으로서의 인격적 자아 개념으로 논의되는 자아 이론과는 다른 접근에서 1인칭 인칭대명사를 통해 인격적 자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를 논증한다(Stango 2015). 논의의 핵심은 “나(I)”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나(I)”는 지표 기호로서 나 자신(myself), 즉 개별적 자아를 가리킨다. 하지만 스탠고는 “나(I)”를 레마적, 지표적, 법칙기호로서 다면적으로 이해한다.

퍼스의 인칭대명사 “나(I)”는 실제적, 비허구적 지시체를 가지는데, 그 지시체가 현재 그리고 주체의 노력 감각에 관한 우리의 의식과 연관된 특정 유형의 지각작용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을 주장한다(Stango 2015:4). 풀어서 말하면, “나(I)”의 지표적 기능을 매개로 1인칭 관점의 개별적 자아가 기술되고, 그러한 기술에서 개별적 자아의 자질에 대한 지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저자가 “나(I)”를 매개로 자신을 기술하면서 현재 의식과 지각행위를 통해 일관성(개인성)의 개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외부대상에 대한 주체의 지각 작용이 느낌으로 경험될 때 상정된 사적 자아(private self)는 자아의식⁴⁾의 형태로 표현된다. 현실적이고 비허구적 경험 주체인 개별적 자아는 경험 내러티브를 통한 자아의식에 기초해 3

4) 스탠고는 퍼스의 자아의식이 개별적 자아의 경험을 동반하고, 사회적 유기체를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이 점이 데카르트 자아와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스탠고는 인칭대명사 “나(I)”, 즉 지표적 기능을 하는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기호에서 자기 지시성은 3차성의 정신이 직관으로 의식하는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차성의 인격적 자아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스탠고는 개별적 자아의 경험, 즉 현재의 노력 감각을 통한 지각 주체의 경험은 자아의식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Ibid.).

Ⅲ. 술어적 세계로서의 장소와 “나(I)”: ‘나는 집이다’

이 섹션에서는 자전적 글쓰기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단계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주체와 장소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 관계는 1차성의 범주에 기초한 ‘(주체)+ BE+장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체와 장소의 관계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를 ‘집’으로 착각하는 은유적 사고를 체현한다(Percy 1989:3장). 은유적 사고는 ‘나’와 ‘집’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나’를 ‘집’으로 지각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나를 집으로 재현/해석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술어 ‘집이다(BE+집)’는 주체인 “나(I)”와 공유되는 자질을 표현하고 있는 도상이다. 따라서 ‘나는 집이다’라고 진술할 때, ‘나’와 ‘집’을 연결하는 연결사(-이다; is)는 기호(‘집’)와 대상(‘나’)을 연결하는 제3의 요소, 즉 해석체이다. 느낌 혹은 자질로서의 해석체이다. 느낌은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로서의 사고의 형태이다. 어린 소녀, 웨스트오버는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장소의 이미지, 즉 느낌의 상태에 존재했다. 따라서 어린 소녀 “나”는 벅스피크의 “집”이라는 개별적인 경험의 장소 이미지에 기초해, 기억과 상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의식한다. 다시 말해 “나”는 가능성(자질)으로서의 1차성의 의식을 경험한다.

『배움의 발견』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의 첫 장은 다섯 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기억은 진짜 기억이 아니다. 상상으로 지어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기억하게 된 이야

기다. 그 기억은 내가 여섯 살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다섯 살 무렵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너무도 자세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충성과 고함이 들리는 **영화 같은 기억을 각자 만들어 냈다**. 내 기억 속에는 귀뚜라미가 등장했다. 귀뚜라미 소리는 우리 집을 포위한 연방 정부 요원들로부터 숨기 위해 식구들 모두가 불을 끈 채 부엌에 모여 웅크리고 있을 때 들리던 소리다. (Westover 2020:14, 강조는 필자의 것)

웨스트오버의 기억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조작된 기억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Ricoeur 2004:1부, 2장). 이는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상징적 폭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 시절의 웨스트오버의 사고는 아버지의 상징 공간에 머문다. 그 상징 공간은 이야기세계, 즉 아버지가 상상하는, 선을 선택하는 세계이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젓과 꿀을 먹을 것이다. 하루 종일 고철과 폐기물들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한 후 지친 아버지는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 그는 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소리 내어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고, 방금 전까지도 피곤에 찌들어 부어 있던 눈이 커지고 번쩍거렸다. 아버지는 이 구절에 신의 교리가 담겨 있으니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냉장고에 들어 있던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모두 없앴고, 저녁에는 트럭에 꿀 190리터를 싣고 돌아왔다. (Westover 2020:15)

웨스트오버가 어린 시절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지각한 아버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매우 엄숙한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억과 상상을 통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중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1890년대의 인디언 학살사건과 다윗파라는 사교집단과 연방 정부 요원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었을 때는 자신의 가족만 알고 있는 이야기라 느꼈다고 기억한다. 아버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정부군과 대치하다 죽은 위버가의 이야기의 결론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아버지의 말만을 기억했다고 웨스트오버는 회상한다.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 웨스트오버의 생각을 지배했고, 할머니를 따라 애리조나로 가서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어린 소녀에게 벅스피크의 집은 세계였다.⁵⁾

저의 새벽 5시가 다 되어 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귀뚜라미 소리와 총소리가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 5시가 지났다. 6시. 7시가 되자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다. 나는 할머니가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몇 초마다 한번씩 우리 집이 있는 언덕 쪽을 올려다보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다가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국도 위로 진입했다. 차가 떠난 후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밀기울을 물에 말아 먹었다. 집 밖으로 나서니 루크 오빠의 염소 가미카제가 반기듯 다가와 헛간으로 걸어가는 내 셔츠를 잘근잘근 깨물었다. [...] 객차가 움직여서 금방이라도 계곡을 뒤로 하고 달리는 상상을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통은 머릿속으로 그 상상을 하면서 몇 시간이고 놀곤 했지만 오늘은 영 필름이 돌아가질 않았다. (Westover 2020:26)

현재의 노력 감각을 통한 지각 경험은 사건의 경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산골짜기 집 환경을 배경으로

5)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의 “집과 세계”라는 장에서 ‘집은 세계다’라는 표현에 대한 분석을 상상력의 현상학으로 설명한다. “상상력의 현상학은, 이미지를 표현의 부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환원에 만족할 수 없다. —이미지의 현상학은 이미지를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살[체험] 것을, 이미지를 삶의 느닷없는 사건으로 여길 것을 요구한다. 이미지가 새로우면, 세계가 새로운 것이다” (Bachelard 1990:167). 바슐라르의 집의 몽상가에 대한 진술에서 은유는 문학적 표현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했던 어린 소녀 “나”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변화의 개념이 순환이라는 점을 교육받았다고 웨스트오버는 기술한다. 어린 소녀에게 산골짜기, 자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있는 집은 환경, 또는 지역, 더 나아가 세계로서 인식되는 집이었다. 따라서 어린 시절 “나(I)”는 자신을 집처럼 여겼다. 자신을 집으로 느꼈다. 이는 집이라는 장소의 풍경에 대한 감각이며, 느낌이다. 말파스는 이를 ‘분별력이 있는 느낌’(thinking feel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⁶⁾ 그 장소는 산 아래의 집,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형제자매와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 공간에서 사는 집이다. 이러한 집에 관한 지각 경험은 이야기세계에서 어린 시절 “내(I)”가 가리키는, 현실의 웨스트오버, 즉 개별적 자아가 경험한 것들의 기록이다. 따라서 “나”의 관점으로 서술되는 1인칭 관점의 이야기세계는 그것의 지표적 기능을 통해 정체성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현실 세계의 개별적 자아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웨스트오버의 자전적 글은 어떻게 새로운 자아, 즉 인격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장소의 지각과 경험을 통해 기술하며 증언한다.

IV. 대상으로서의 장소와 경험: ‘나는 집을 떠났다’

현상학적 관점의 다음 단계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주체와 장소의 관계는 ‘주체+ Vt(transitive)+장소’의 형태로 재현된다.

2부의 에피소드들은 명제적 진술, “나는 벅스피크의 집을 떠났다”를

6) 말파스는 장소를 매개로 일어나는 사고의 현상적 측면이 장소의 지각, 장소에 대한 느낌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시적 언어와 시적 발화에서 ‘정서적 사고(felt thinking)’ 또는 ‘분별력 있는 느낌(thinking feeling)’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고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고 자체가 방향성, 즉 자기 위치를 시적 언어 속에서 찾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A phenomenology of thinking in place” in Jill Bennett and Mary Zournazi, eds. *Thinking in th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2020, Kindle edition. Chap. 3. loc. 1277).

재현한다. 술어적 논리에서 보면, “떠났다”라는 술어는 현실의 대상과 대응되는 두 항을 갖는다. 채워져야 할 두 공백은 두 개의 주어, 즉 현실의 “나”(주체)와 “벅스피크(장소)”에 상응한다. 그리고 두 주어의 관계를 통해 명제적 진술은 의미를 얻는다. 따라서 두 주어는 17세 소녀인 타라 웨스트오버와 벅스피크 그녀의 집이며, 둘의 관계에 기초한 명제적 진술의 진정한 의미는 명제기호 외부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야기세계에서 어린 시절 “나”와 이를 기술하는 현실 세계의 개별적 자아인 웨스트오버는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이해와 자기 해석의 배움의 여정을 이어간다. 그 과정은 서로 다른 두 장소의 경험과 두 자아에 대한 경험의 재현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해 벅스피크 집의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란 어린 소녀의 자아와 대학 캠퍼스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성장기 소녀의 자아에 대한 이중적 의식의 경험이며, 웨스트오버는 벅스피크의 집과 대학 캠퍼스를 번갈아 오가며, 두 자아 사이를 순환한다. 마치 산골짜기 집에서 산을 바라보며 계절의 순환을 리듬으로 배운 것처럼, 17세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학교 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된 웨스트오버는 집과 대학 사이를 오가며, 그러한 리듬이 변화라고 착각하며, 두 자아 사이를 순환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장소 철학을 실천한 위커 퍼시는 자신의 에세이 “기차 안의 남자”에서 실존적 자아가 자신을 위치시키는 세 양태에 대해 말한다. 소외(alienation), 순환(rotation), 반복(repetition)이 그것이다 (Percy 1989:4장). 기차로 출근하는 남자는 기차라는 장소에 자신을 위치시키며, 기차 밖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킨다. 그리고 그 통근자는 기차에서 내려 직장으로 향하고, 일을 마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그는 집과 직장 사이를 순환하는 움직임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는 시간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그러므로 퍼시에 따르면 장소와 자아의 관계에서 바라본 인간의 실존은 자신을 어떤 장소와 시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웨스트오버의 경우 어린 시절 “나(I)”는 기억과 상상 위에 구축된 집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이 소외된다. 그 장소는 오용된 기억과 상상이 만들어 낸 세계였다. 그 장소에 속한 “나” 웨스트오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서 역사나 문학을 배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내게 허구의 이야기와 사실에 근거한 배경의 차이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과 장발장 중 누가 역사적 인물이고 누가 허구의 인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Westover 2020:230). 그리고 그녀에게 기억과 상상의 공간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장소, 벅스피크이다. 폭력과 억압을 경험한 어린 소녀는 오용된 기억과 상상의 세계에서 소외된 자신의 근원을 찾기보다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조작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부상 때문에 오빠가 많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오빠의 잔인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믿어 버렸다. 그 기간에 쓴 내 일기를 보면 그런 인식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 말이다. **그 소녀가 다시 쓴 현실 속 그녀의 오빠는 팔레트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내 베스트 프렌드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쓰고 있다. <부상을 입기 전에는 오빠가 나를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Westover 2020:201, 강조는 필자의 것)

어린 시절의 자아는 실제 사건의 기억을 아버지 목소리를 통해 수정하면서까지 벅스피크 집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집의 위치에서 벗어나 대학과 집 사이를 순환하는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부터, “나”의 기억에 대한 기록은 조작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후에 수정된 기억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두 기억이 공존했다.

이 어렴풋한 지식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몇 분 동안은 내 전체를 지배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다시 가져다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 <오빠가 어느 순간 나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했다. 내 양손 모두를 머리 위로 올려서 잡았고, 내 셔츠가 딸려 올라갔다. 나는 오빠에게 옷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정말 못된 사람처럼 드러난 내 배를 뻗히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몸집이 작아서 다행이다. 내가 좀 더 컸더라면 그 순간 오빠를 찢어발겨 버렸을 테니까>. (Westover 2020:295, 강조는 필자의 것.)

서술자로서 웨스트오버는 오빠에게 사과와 메일을 받고, 전날 쓴 일기의 반대편에 자신의 기억을 다시 고쳐 썼다고 말한다. 오해였다고. 내가 멈추라고 말했으면 오빠도 멈췄을 거라고. 두 기록을 공존시키는 것에 대해 웨스트오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번째 기록이 첫 번째 기록을 덮을 수는 없었다. 두 일기 모두 보존될 것이다. **나의 기억과 오빠의 기억이 나란히 공존할 것이다.** 앞뒤 말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대담한 행동이었다. 두 페이지 중 하나를 찢어 내버릴 수도 있었지 않은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행동이다. (Westover 2020:296, 강조는 필자의 것)

웨스트오버는 그때의 소녀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서술되어져 왔다고 말한다. 어린 소녀 “나”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의 세계로 표현됐다. 하지만 그 소녀는 오빠의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그 장소를 몸을 통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건의 기억을 기록한다. 장소 이미지에 대한 기억과 상상의 혼합된 상태가 분리되고, 사건의 기억에 대한 기록이 지식의 형태를 띤다. 실제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주체와 대상을 동일

화하여 아버지 기억의 공간에 거주했던 어린 소녀는 그 둘을 분리하여 인식한다. 이제 집을 느낌으로서가 아닌 삶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그 소녀는 주체로서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대상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세금 신고서를 훔치기 위해 갔던 그때가 처음으로 내가 <내 집을 떠나> 벅스피크로 갔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침입자 신분으로 들어갔었다. 그것은 심리적 언어에 온 큰 변화였고,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내가 쓰는 표현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줬다. 다른 학생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나는 <아이다호에서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 후로도 수없이 그 말을 반복했지만 한 번도 그 문장이 입에서 편하게 흘러나오질 않았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 진정으로 속해 있을 때, 그곳의 흠에 뿌리를 내린 채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아이다호에서 왔어요> 라는 말은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한 번도 뱉어 본 적이 없는 문장이었다.** (Westover 2020:309, 강조는 필자의 것.)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한 기억과 상상의 집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집이라는 장소를 알아가려는 “나”는 그것 때문에 분열되었다. 즉 느낌으로서의 사고와 사건의 기억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실제적 사고 사이의 대립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웅장한 캠퍼스의 풍경은 “나”의 배경이 될 수 없었고, 그 장소에 속할 수 없음을 느꼈다. 한편 “나”는 벅스피크에 돌아와서는 예전의 어린 소녀처럼 용감하지도, 단단하지도 않음을 느끼고, 오빠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껴야했다.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오가며, 장소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소녀에게 기억의 공간은 벅스피크의 아버지의 세계였다. 당시의 웨스트오버는 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자신이 달라지지 않음을 인식했다.

케리 박사에게 그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케임브리지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올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봇물 터지듯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케리 박사에게 할 수는 없었다. [...] 케임브리지에서는 그 대비가 너무 컸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 장엄했다. **차라리 내 기억들이 돌로 쌓아 올린 침탐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믿기 쉬웠다.** (Westover 2020:362, 강조는 필자의 것)

V. 표현으로서의 장소와 대화적 자아: ‘나는 우리 가족에 관해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마지막 단계인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주체와 장소와의 관계는 ‘주체₁+ Vd(dative)+ 주체₂ + about 장소’의 형태로 재현된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한 기억과 상상에 의존해 벅스피크 집의 세계에 의해 표현되었던 어린 소녀는 이제 벅스피크로 다시 돌아가 잃어버렸던 장소를 발견하고 어린 소녀의 자아를 떠나보내며, 새 자아를 발견한다. 자신의 역사를 쓰는 현실의 웨스트오버는 벅스피크라는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나(I)”와 대화한다. 두 장소의 변증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격적 자아는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속한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 자신까지도 이야기 세계에 초대하여 대화를 요청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 집에 관해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진술에서 ‘이야기한다’의 술어는 3개의 항, 즉 현실에 대응하는 세 주어를 대화의 장으로 소환한다. ‘타라 웨스트오버(주체₁)’, ‘벅스피크(장소)’, ‘독자’(주체₂)가 그것이며, 이들은 삼원적으로 연결되어 의미를 발생시킨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 책을 내려놓으며 독자는 ‘벅스피크’라는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웨스트오버는 벅스피크를 떠난 후 캠브리지 대학 학위과정과 하버드 대학 방문연구원으로 지내는 동안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절연하게 되었

다. 마음속에 분노, 자기 비난, 상실감, 슬픔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매주 다가오는 상담 시간과 다음에 볼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를 생각하며, 2년 정도를 보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가족의 의무가 친구, 사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캠브리지 대학교 역사학 박사가 되었다. 당시 웨스트오버는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는 데 성공한 자기 삶에 행복해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상실감은 가족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벅스피크를 잃었다. 그곳을 떠나서 잃은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잃은 것이었다. 나는 후퇴를 했고, 바다 건너 도망쳐서 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도록 허락했고, 나를 아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아버지의 잣대에 맞춰 정의하도록 허락했다. 내가 너무 많은 영토를 내준 것이다. **내가 내준 것은 산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했던 역사의 땅 전체였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다.** (Westover 2020:468, 강조는 필자의 것)

웨스트오버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나”와 벅스피크의 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그녀는 케리 박사의 강의 하나를 떠올렸다. <누가 역사를 쓰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강의였다. 당시에 소녀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역사학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었다. “선지자들이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처럼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비전을 볼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보태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Westover 2020:467).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 원고를 들고 집으로 향하며 킹스 칼리지의 거대한 채플 그림자를 보면서 “나” 웨스트오버는 <누가 역사를 쓰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웨스트오버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벅스피크에서의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자신의 이해를 수정하며, 자신의 기억을 믿으며, 자신의 기억에 오빠들의 기억을 보태면서, 자신의 역사,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쓰고 있다. 한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대체하지 않고, 다른 기억을 이전 기억에 보태면서, 병렬적으로 기록한다.

‘본문에 관한 저자의 말’에서 웨스트오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더 복잡한 존재들이다”(Westover 2020:486). 현실 세계의 개별적 자아들은 각각 한 사건을 다르게 기억한다. 그 각각의 기억들이 보이는 대상을 결정하고, 정의한다. 벅스피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족 모두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점,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웨스트오버가 기술하기를, 저자 자신과 오빠들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작은 사건들에서 대처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들로 인해 모두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아버지는 그냥 놔둘 거라는 확신. 우리는 먼저 죽을 것이다”(Ibid.).

웨스트오버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야기세계 속에서 대상, 사람, 사건을 한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정론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통해 현재 보이는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벅스피크를 떠난 것이 과거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린 소녀가 경험했던 ‘벅스피크’라는 장소의 이미지에 대해, 그때는 차마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기록하며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하여, 아버지의 삶에 대하여. 현재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일종의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새롭게 과거를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현재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과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웨스트오버의 자전적 글은 왜곡되거나 오용된 기억, 상상으로 대체된 기억의 정치학을 지금 여기, 몸을 가진 개별적 자아의 장소 경험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자 하는 노력의 기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이야기는 독자인 우리에게로 연결되는 진행형이다. 장소와 기억은 우리의 몸과 정신에 상응하는 두 연결된 존재의 조건이다. 장소와 기억은 물리적 세계와 정신의 세계에 속하게 하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점에서 장소와 기억은 현상학적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속한 물리적, 정신적 세계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런 점에서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듯이 장소는 기억과 연결된다.

장소기억은 인간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조건에서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하는 경험 주체의 살아있는 삶이고, 살아있는 정신이다. 웨스트오버가 잘 지적하듯이 기억과 장소의 틀에 갇혀 인간을 규정하는 일은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묘한 존재,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Percy 1989). 그러므로 개별적 자아로서 인간은 사고의 기호과정을 추동하는 실존적 주체이자, 그러한 기호과정에서 소외된 자기 자신의 근원을 찾고, 장소를 알아가며, 둘의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마치 산이 있어 산에 오르고, 장소가 있어 찾아가듯이, 사고가 먼저 있으므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는 사고의 기호과정에 참여한다. 장소 경험을 통해서이다. 여행자는 상상을 통해서 장소를 그려보고, 실제의 장소 경험을 통해 장소에 관한 지식을 얻으며, 여행에서 돌아와서 장소와 의미를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 작용주체(human agency)이다.

웨스트오버의 ‘장소 내러티브’는 장소와 기억이라는 대상과 관련하여 숙고하는 주체의 자율성을 통해 사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인격적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⁷⁾ 이런 맥락에서 인격적 자아

7) ‘여행하는 주체’와 ‘장소 내러티브’ 주제와 관련, 이윤희 「여행 내러티브에 대한 퍼스 기호학적 접근: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중심으로」(『기호학연구』 45, 한국기호학회, 2015, 261~292쪽) 와 「장소를 매개로 한 상상력과 내레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사로안랜드》를 중심으로」(『영상문화』 2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117~153쪽)을 참고하라.

는 서술되는 자아를 통해 나타나는 내러티브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표현으로서의 장소는 자아의 표현이 된다.

Ⅵ. 나가는 말

본문에서 분석한 자전적 글쓰기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소를 찾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어린 소녀 웨스트오버의 기억의 공간은 타인들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다. 그것은 아버지로 인해 조작되고, 오용된 기억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장소를 찾아가는 내레이션 행위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 언어는 장소, 기억, 사고의 경우처럼 현상학적으로 고찰된다. 언어의 시적 기능을 통해 우리는 언어의 집에 거주한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능동적 주체로서 말을 통제함으로써 말과 인간은 서로를 교육하는 관계가 된다(Peirce CP 5.313). 시인은 자연에 대해 머릿속에 느낀 것을 언어로 기술한다. 다시 말해 시인은 자연의 기호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언어에 표현한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느낌이 시각 또는 청각 기호를 통해 그림이나 음악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인의 언어는 1인칭 인칭대명사 “나(I)”처럼 자기반성적, 자기지시적 힘을 갖기 때문에 시인의 내레이션은 자신을 해석하여 표현하는 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도상은 감각에 어필하고, 지표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상징은 우리의 사고, 정신에 어필되기 때문에 언어기호를 통한 내레이션의 행위는 앎(knowing)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기호과정은 도상기호와 관련된 감정적 해석체, 지표기호와 관련된 활력적 해석체, 상징기호와 관련된 논리적 해석체를 삼원적으로 관계지으며, 주체의 장소 경험을 재현가능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배우기를 원하며, 대상과 마주하여 숙고하는 작용주체이자, 앎을 사랑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기호적 인간의 주체성을 웨스트오버의 자전적 글 『배움의 발견』에서 확인한다.

참고문헌

- 김성환, 「장소 사랑과 무장소성」, 『장소 철학 1 :장소의 발견』, 서광사, 2020, 5~31쪽.
- 김성환 외, 『장소 철학 2.:장소와 윤리』, 서광사, 2021.
- 백년어서원 편, 『나는 장소입니다』, 도서출판 전망, 2015.
- 이윤희, 「여행 내러티브에 대한 퍼스 기호학적 접근: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45, 한국기호학회, 2015, 261~292쪽.
- , 「장소를 매개로 한 상상력과 내레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사로안랜드》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23,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117~153쪽.
-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민음사, 1990/1957, 157~199쪽.
-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topos: 장소의 철학』, 박철은 역, 그린비. 2021/1988.
- 모리스 볼랑쇼, 『문학의 공간』, 박혜영 역, 책세상, 1990/1978, 349~364쪽.
-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의 발견: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김희정 역, 열린책들, 전자책, 2020/2018.

- Charles S. Peirce,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C. Hartshorne, P. Weiss & A. W. Burks (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66. [Reference to Peirce's papers will be designated CP followed by volume and paragraph number]
- ,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1(1867-1893), Nathan Houser & Christian Kloesel, ed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Reference to Peirce's papers will be designated EP followed by volume and page number]
-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2000.
- Edward S. Casey and Malpas, Jeff. "A Phenomenology of Thinking in Place" in Jill Bennett and Mary Zournazi (eds). *Thinking in th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2020. Kindle edition Chap. 3.
- Jeff Malpas, *Place and Experience: A Philosophical Topogra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 John J. McDermott, *The Drama of Possibility: Experience as Philosophy of Culture*, Douglas R. Anderson(ed.).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7.
- John William Miller, *The Task of Criticism: Essays on Philosophy, History, and*

- Community*. Joseph P. Fell, Vincent Colapietro, and Michael J. McGandy (eds.)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5. pp. 203~220.
- Marco Stango, “‘I’ Who?: A New Look at Peirce’s Theory of Indexical Self-Reference”, *The Pluralist*, 10 (2). 2015. pp. 220~246.
- Paul Ricoeur, *Memory, History, Forgetting*. Kathleen Blarney and David Pellauer (Tra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Walker Percy, *The Message in the Bottle: How Queer Man Is, How Queer Language Is, and What One Has to Do with the Other*.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89.

Semiotic Thinking through Remembering, Imagining,
and Experiencing Place:
An Analysis of Autobiographical Writing *Educated* for
Cultural Literacy

Lee, Yun-Hee

This paper aims at an inquiry into semiotic thinking which is manifested in autobiographical writing as representation of place and experience. In terms of methodology I will look at the acts of remembering and imagining while the subject represents experience and place by means of the indexical and self-referential sign “I”. In doing this, I analyze an autobiographical writing *Educated* by Tara Westover from Peirce’s semio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experiencing subject who comes to discover a new self in the semiotic process of finding the lost place, I discuss the relationship of place and the self from three perspectives of phenomenology, epistemology, and interpretation. As a result, I find that a place as landscape transforms into expression through which the semiotic agency participating in the action of sign expresses ‘oneself as another’ by means of ‘place narrative’. Thi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n autobiographical writing are geared to cultural literacy which leads to a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others.

Keywords : Autobiographical writing, Cultural literacy, Experience, Imagining, Place,
Peirce’s semiotic, Remembering, Tara Westover

투고일: 2022. 03. 23./ 심사일: 2022. 04. 13./ 심사완료일: 2022. 04. 14.